

BECAUS NEWS

BECAUS는 Be+CAUS(Chung Ang University Student)의 합성어로 **중앙인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발행일 2015년 12월 02일 기획·발행 중앙대학교 입학처 02-820-6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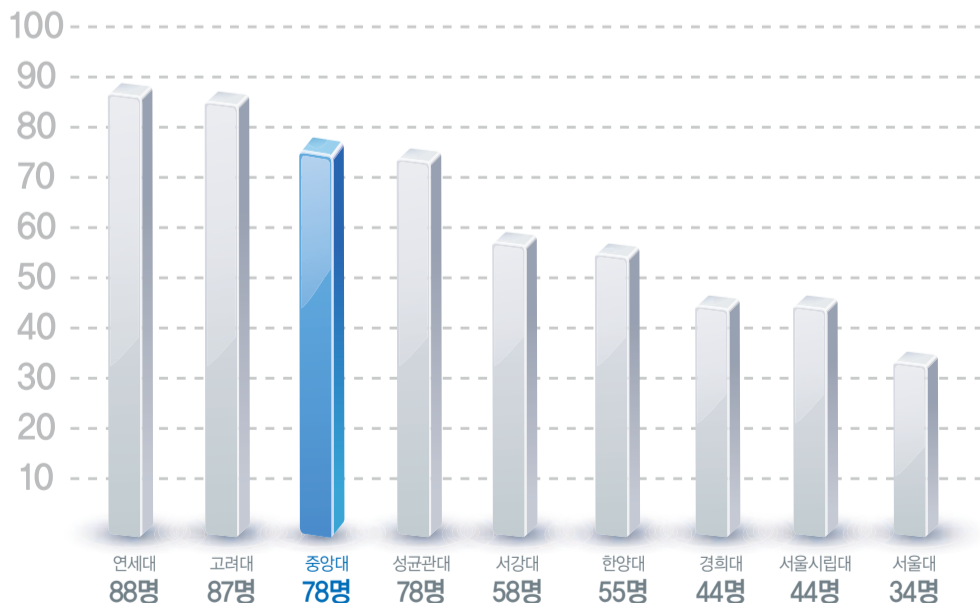
admission.ca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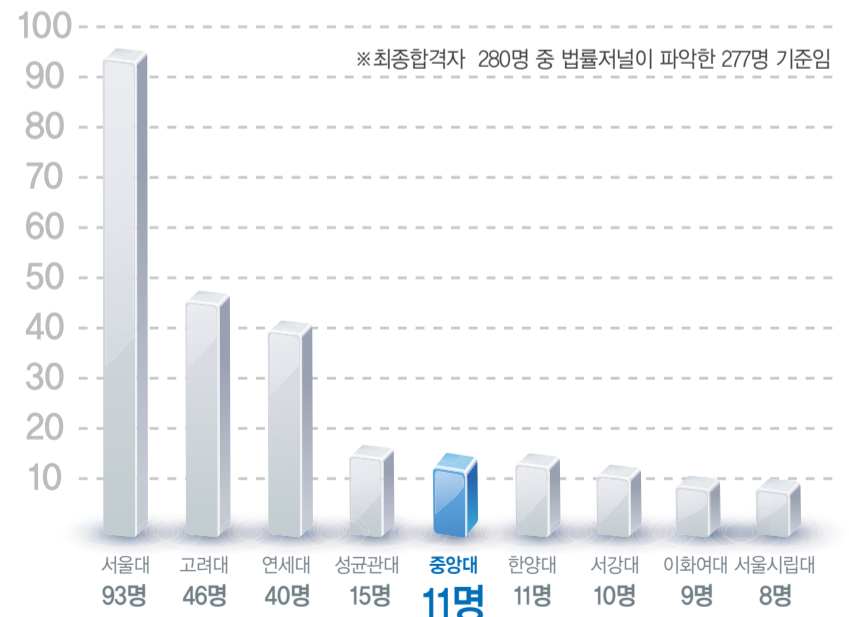
어디서 미래를 시작할 것인가

- 2015년도 공인회계사(CPA) 최종합격자 3위(78명)
- 2015년도 행정고시 최종합격자 5위(11명)
- Google, YouTube, Microsoft, ORACLE, THE YOZMA GROUP 공동 인재육성 MOU 체결
- 산업보안학과, 국제물류학과 각종 국가지원사업 선정

대학별 공인회계사 최종합격자 배출대학 TOP 9



대학별 행정고시 최종 합격자 배출대학 TOP 9



중앙대학교는 2011년 42명(8위)을 시작으로 2012년 59명, 2014년 62명을 거쳐 올해 78명의 합격자를 배출함으로써 강세를 이어갔으며, 이는 두산그룹의 중앙대학교 경영 참여 이후 고시반 및 제반 인프라 투자의 결과로 해석된다. 강선민 용우당 지도교수는 "재단이 바뀌며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고, 학교의 적극적인 고시반 지원이 합격률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합격률이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도 행정고시에서 중앙대학교는 11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함으로써 국내 대학 중 5위를 기록, 명실공히 '고시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중앙대학교는 행정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고시, 금융고시, 언론고시, 임용고시반 등 다양한 분야의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고시반마다 담당 지도교수 및 조교들을 배치해 학습·생활 관리를 철저히 하며, '승

당관'·'퓨처하우스' 등 2개의 기숙형 고시원도 운영한다.

사법·행정·회계사·변리사·기술고시 합격자들에게는 1차 합격의 경우 1년간 등록금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급되며, 최종 합격자는 재학 중 등록금 전액이 면제된다. 특히 두산재단에서는 고시반에 대한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히고 있어 향후에도 고시 합격자 배출에서 중앙대의 '약진'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Hot Issue

CAU-유타大

공동 연구센터 설립 확정

‘디지털 휴먼 웰니스’를 위한 연구센터 출범



▲ 중앙대 김원용 LINC 사업단장(左)과 미국 유타대 크리스 와스덴 교수가 연구센터 설립 계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 앙대학교와 미국 유타대는 지난 11월 11일 ‘디지털 휴먼 웰니스를 위한 중앙대-유타대 연구센터(CAU-UU Research Center for Digital Human Wellness)’ 협약식을 갖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중 인천 송도의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에 ‘디지털 휴먼 웰니스를 위한 중앙대-유타대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양 대학이 각 5만 달러를 투자하여 공동 연구프로젝트가 수행될 예정이다.

4월에 맺은 두 대학 간 MOU를 바탕으로 산학협력 공동 연구, 교수 및 연구원 교류뿐만 아니라, 향후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중앙대학교와 유타대학교의 공동 MBA, 복수학위과정, 학석사 연계과정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유타대 측 대표인 Chris Wasden 교수는 “휴먼 웰니스 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중앙대학교와 유타대학교의 복수학위과정,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계약 건으로 유타대 아시아캠퍼스에 중앙대-유타대 연구센터가 생기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연구센터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산업보안 특성화학과 지원 시범사업’ 선정



산 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지원하는 ‘산업보안 특성화학과(학사과정) 지원 시범사업’에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가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보안학과에서는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과 함께 문제 해결 중심의 산업보안 전공수업, 산업보안 역량 단기 교육 과정, 산업보안 현장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산업보안학과 학생들은 우리 대학에서 기존에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특성화학과 프로그램과 함께 본 특성화학과 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우선의 역량을 학습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물류학과, 향후 5년간 해양수산부 20억 지원

국 제물류학과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제3차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15~’19) 중 해운항만물류분야 재직자 대상 ‘장기교육과정(단장 방희석교수)과 석·박사과정을 지원하는 ‘고급전문인력양성과정(단장 이충배교수)’ 지정기관으로 1월30일 선정되었다.

각 사업단은 2월 중 해양수산부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장기교육과정은 매년 3억씩 5년간 15억을 지원받게 되고, 고급전문인력양성사업은 매년 1억씩 5년간 5억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해운물류학과 대학원생과 일반대학원 국제물류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하게 되었다.

국제물류학과는 이번 선정으로 CK-II의 학부과정과 함께 대학원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 사진 좌측부터 방희석, 이충배 교수

혁신의 아이콘 발전을 만든다



지 난 6년 간 중앙대는 대학가에서 ‘혁신’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 왔고, 대학 개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가장 경쟁력있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재를 육성한다는 교육 철학으로 학문단위 재조정 및 특성화를 통해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였고, 이를 토대로 더욱 경쟁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연구·교육·행정 등 기능형 부총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운영과 시스템의 비효율 개선,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 운영, 신규 공간 확보 등 대학 전반에 걸친 인프라 혁신을 추진해 왔고, 대학평가 등 각종 지표를 통해 혁신을 통한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신약 기술수출로 7.5兆 ‘대박’ 중앙대학교 동문의 힘!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다

최 근 해외 기술수출로 7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성사시킨 한미약품의 임성기 회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미약품의 기업 핵심정신인 ‘창조와 도전’은 없는 길을 만들어가며 목표를 향해 꾸준히 도전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이번 성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앙대의 인재상인 창의·융합·도전정신과 일치한다.

중앙대학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명문 사학으로, 창의·융합·도전이라는 인재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동문을 많이 배출하였다. 정치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중앙대 출신 장관은 5명으로 연세대학교(8명)에 이어 4위를 기록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순위로는 총 5위를 기록하여 정계에서의 중앙대 출신 동문들의 활약이 크다.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장 연속 배출의 저력을 보이기도 하였고, 국회의원의 수로는 15대에서 정점을 찍고 18대와 19대에서 6위를 기록하였다. 중앙대의 위상이 점점 높아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관계뿐 아니라 재계에서도 중앙대 출신 동문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한국경제매거진이 발표한 “2014년 한국 100대 기업 CEO 출신대학 순위”에서 중앙대학교 출신의 CEO는 전국 5위를 기록하였다.



국내 최대규모 100주년 기념관 건설



2016년 7월 준공 예정,
학생 학습환경 및 교원 연구환경 개선

중 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및 경영경제관은 총 지하 6층, 지상 12층, 연면적 73,899.7㎡(약 22,355평)의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2018년, 개교 100주년을 준비하며 대학의 전통과 역사성, 캠퍼스 부지 및 기존 건물과의 조화 등을 감안해 감성·융합·힐링 공간을 목표로 설계하였다. 해당 건물은 대형 강당, 각종 강의실, 연구실, 실습실 등 교육 인프라를 여유있게 갖춘 교육용 복합건물이 될 것이다. 중앙대 관계자는 “총 35개월 간의 공사를 거쳐 2016년 7월에 준공 예정인 100주년 기념관 및 경영경제관을 통해 혁신캠퍼스 공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과 교원들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앙대학교는 2008년 두산그룹을 재단으로 영입한 이후 현재까지 약 3,500여 억원을 투입하여 경영경제관 신축을 비롯해 약학대학 및 R&D 센터, 기숙사(1차 2차), 병원 제2병동, 퓨처하우스(고시안 전용 기숙시설) 등을 신축하였고, 보스홀(공과대학), 교수연구동 증축과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안성생활관 리모델링, 학내공간 재조정 등 대학 교육환경 개선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2015학년도부터 기존 혁신캠퍼스 블루미르홀(1차 기숙사)에 더불어 2차 기숙사가 완공되어 추가로 총 1,268명, 1·2차 기숙사 통합 2,20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었다. 기숙사에는 전용식당, 피트니스실, 택배보관실, PC라운지, 세미나실 등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국내대학 최초! 구글,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과 공동 인재육성 MOU 체결

학문단위 구분없는 창의·융합·실전형 콘텐츠 인큐베이터인 'CAU Creative Studio'
글로벌기업의 강의제공 및 명사특강, 장학생 선발 및 인턴십 기회까지 제공



▲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CAU Creative Studio) 전경

지난 2014년 9월, 중앙대에서는 '중앙대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CAU Creative Studio)' 설립과 운영을 위한 협력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를 위해 구글에서는 Gautam Anand 유튜브 아시아태평양 총괄대표와 서황욱 구글코리아 유튜브 파트너십 총괄이사가 참석하였다. 'CAU Creative Studio'는 학생들의 창의적 상상력이 창작 활동으로 이어지고, 또 창작된 콘텐츠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에서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글-유튜브 사업부에서는 중앙대와 함께 맞춤형 공동 커리큘럼을 개발해 운영한다. 구글이 콘텐츠 전문가 육성을 위해 국내 대학과 손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대학교에서는 문화·예술 등 창의적 창작에 필요한 과목을 개설하고, 글로벌 콘텐츠 유통에 강한 구글-유튜브에서는 저작권, IT실무 등 콘텐츠를 실제로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과목을 개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글에서는 실무 강사진 파견, 우수학생 선발 및 미국 LA와 일본 도쿄에 위치한 구글 유튜브 스페이스(Google YouTube Space)에서 협력 프로젝트 진행, 글로벌 인턴십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한다. 이 과정을 마친 본교의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구글의 협력 하에 글로벌 콘텐츠 시장 진출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국내 최초의 구글, MS와의 협력 프로그램

또한 중앙대학교와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는 중앙대학교 Creative Studio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글로벌 실무 감각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로 하였다. 대학의 공급과 기업의 수요에 의한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MS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11월 11일 MS 아시아태평양 총괄 분산 강 부사장을 비롯한 MS 임

원진이 본교를 방문하여 진행되었다. 분산 강 부사장은 MOU를 체결한 후, "21세기 글로벌 사회가 원하는 인재"라는 주제로 강연한 후, 학생들과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MOU의 주요 내용은 MS가 대학 내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아닌 '인재 육성'을 위한 커리큘럼을 개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커리큘럼 개설은 국내 대학으로서의 최초이며, MS는 중앙대만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와 전문 실무강사진을 파견하여 본교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CAU-MS 장학생'을 선발하여, 선발된 학생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실무인재를 육성, 현장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중 우수한 학생은 MS 한국지사에서 실습을 하며 업무현장에서 실질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30일, 서울 R&D센터 광장에서 'CAU Creative Studio' 개소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철수 이사장을 비롯해 이용구 총장, 신의진 국회의원, 오라클 김상현 전무, 마이크로소프트 호웅기 상무, 구글 유튜브 김범휴 차장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용구 총장은 "중앙대의 Creative Studio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신의진 의원은 "창의력과 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Creative Studio가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성공의 열매도 함께 거두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CAU Creative Studio는 글로벌 기업과 함께 본교의 젊은 인재들을 세계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교육과정 및 인턴십 기회는 인문사회, 자연공학, 경영경제, 의학, 예체능 전공 등 모든 학문단위의 중앙대 학생에게 열려있다.

'요즈마 그룹'과 함께하는 스타트업 캠퍼스

창업지원 자금,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기회
제공 등 다양한 기회 제공



이 이스라엘의 세계적 스타트업 지원 그룹인 '요즈마 그룹'은 중앙대학교의 'Creative Studio'에 스타트업 캠퍼스를 설치, 중앙대 학생들에게 요즈마 그룹 내의 교육과정(Yozma accelerator Program) 이수 기회와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자금 지원(Start-up Seed funding)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돕기로 협약을 맺었다.

요즈마그룹은 "캠퍼스 내에 교육공간을 넘어서,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산실을 중앙대와 함께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요즈마 스타트업 캠퍼스를 통해 중앙대 학생들의 창의성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